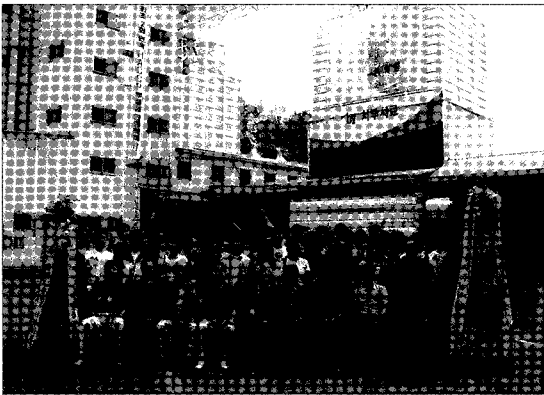


(주)트루라이프 · 서부사료(주)

▶▶ **창립 42주년 기념식 개최**



(주)트루라이프 · 서부사료(주)(회장 정세진)는 지난 6월 10일 창립 42주년을 맞아 임직원 및 헬스 컨설턴트들과 함께 창립 기념식 및 한미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보여주재! 실현하자! 하나된 서부의 힘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기념식은 최광일 사목이 인도하는 창립예배를 시작으로 우수기사 포상, 42주년 회고 영상전,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창립기념식에는 컨설팅본부 박태순 이사 등 10년 이상 근무한 구성원 총 8명에게 장기 근속상을 수여하고 탁월한 대고객 서비스로 모범이 된 이종갑 기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특히 금번에는 서부그룹 창립을 기념하는 사전 행사로 ‘생일떡 만들기’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구성원 대표들이 축하메시지를 전하며 힘차게 떡을 치는 퍼포먼스와 모두 떡을 나눠 먹는 과정을 통해 창립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

정세진 회장은 기념사에서 “시련과 역경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우리는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도약하는 길목에 서 있다”고 소감을 전하며 “농장 경영 컨설팅과 건강컨설팅, 그리고 해외농축산 컨설팅 활동이 고객들에게 가치를 인정받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성원 각자 지금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구성원들을 독려했다.

▶▶ **서부사료, 2회 연속 HACCP 무결점 인증**



서부사료(주)는 지난 5월 24일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원으로부터 HACCP 심사를 실시한 결과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에서 결함이 전혀 없는 무결점 판정을 받았다.

금번 2회 연속 무결점 인증은 2006년 서부사료 HACCP 최초 지정, 2008년 무결점 인증에 이은 성과로서 업계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이는 서부사료 전 구성원이 일회성이 아닌 업무에 상시적으로 HACCP 체계 준수 및 당사 품질경영시스템을 철저히 적용한 결과, 도심 속 친환경 공장 운영의 성공 케이스로 당당히 인정받은 쾌거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도시에 위치한 서부

사료는 주변지역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공장 조성을 위해 2003년부터 도색, 녹화사업, 최첨단 플라즈마(Plasma) 설비 및 사료공장 최초 물분사 탈취하우스 설비 구축, 소음 저감을 위한 노후 설비 교체 등 수십억 원을 환경 보존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

이외 매월 2회 전 사원이 참여하는 '클린데이(Clean day)' 실시와 현장 담당자별 '일 공장장 제도' 운영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시스템 구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부사료(주)는 금번 2회 연속 HACCP 무결함 인증을 계기로 HACCP 선진지 공장 견학, 친환경 공장 운영 사례 발표 등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의 노후를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유하면서 축산인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 농축산업계 선진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로, 인체분야에서는 이미 엠에스디 회사명을 써왔지만, 동물약품 분야는 그간의 인터베트-쉐링푸라우 브랜드를 감안해 회사명 변경을 미뤘다.

엠에스디(머크)사는 지난 3월 사노파-아벤티스사와 동물약품 사업부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이후 동물약품 분야 회사명 변경을 추진해 왔다.

이번 회사명 변경은 엠에스디(머크)의 동물약품 사업에 대한 열정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면 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나라에서는 엠에스디동물약품이라고 불려지게 됐다. 인터베트코리아 역시 '한국엠에스디동물약품'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회사 법인명 인터베트코리아(주)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엠에스디동물약품은 동물병원, 농장 등 고객들의 경우 아무런 변화없이 기존 인터베트-쉐링푸라우와 마찬가지로 접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승원 대표이사는 "새로운 회사명 출범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 혁신적인 동물약품을 공급해 한국 축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엠에스디동물약품

▶▶ '인터베트-쉐링푸라우'에서 상호 변경



인터베트-쉐링푸라우가 7월 1일자로 엠에스디 동물약품(MSD Animal Health)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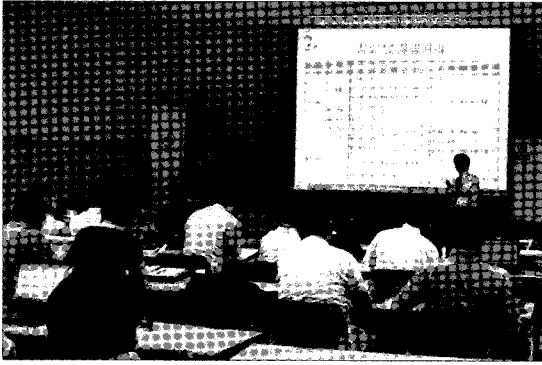
이는 지난 2009년 3월 엠에스디(머크)사가 인터베트-쉐링푸라우를 인수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천하제일사료

▶▶ 양계세미나 개최

천하제일사료(대표이사 윤하운)는 지난 6월 2일 대전 중앙연구소에서 지역부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계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5월 역대 최고 판매톤수를 달성해 고양된 분위기로 시작된 이날 양계세미나는 지역부장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이날 세미나의 주요 관심사는 오는 7월 1일 시행하는 사료내 항생제 전면 금지 법안과 관련하여 무항생제 사료에 관한 지식이 주를 이루었다.

사료용 항생제(AGP)는 성장을 촉진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질병을 예방시켜주고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저 수준으로 사료내에 첨가 급여하는 항생제를 말한다. 가축의 이상증후 및 질병 발생시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용 항생제와는 다른 것이다.

AGP사용을 금지하면 소화관의 건강과 보전을 위한 방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영양소 이용률을 최대화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

천하제일사료는 소화율 개선으로 미생물 성장에 필요한 기질을 최소화시키고 영양소 이용률을 증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사료원료를 사용한다. 또한 근위 자극을 통한 근위발달 및 운동향상을 위한 최적의 사료입자로 개발했다. 또한 펠leting, 익스트루전 등 고온 고압으로 가공하여 멸균 처리해 사료 소화율을 개선했다.

천하제일은 항생제 대체물질로 생균제와 효소제, 유기산제, 프리바이오틱스(Prebiotics),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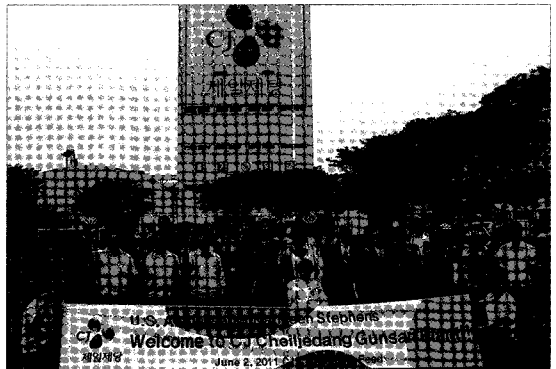
lipoic acid 등을 사용한다.

또한 일반농장에는 항콕시듐제를 사용한 사료를, 무항생제 축산 인증 농장에는 항콕시듐제도 제외한 사료로 나누어 공급한다.

천하제일은 2009년부터 무항생제 사료를 생산하여 판매했다. 이미 2년동안 무항생제 사료를 사용한 실증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 만큼 항생제 금지법안에도 대체방법을 굳건히 하여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다.

CJ Feed

▶▶ 주한미국대사 군산 사료공장 방문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가 자전거로 서해안 종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2일 CJ제일제당 사료사업부(부부장 이병하)의 군산공장을 전격 방문했다.

이번 자전거 종단은 한·미 양국 공동비전 성명에 따른 공공외교 행사의 일환이며, CJ군산공장 방문은 미국곡물협회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당초 GM공장과 CJ군산공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바쁜 일정상 CJ군산공장만을 방문했다는 후

문이다. 이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 사료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CJ의 글로벌 영향력과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CJ그룹과 군산공장에 대한 소개 브리핑을 받은 자리에서 스티븐스 대사와 22명의 일행들은 CJ의 제품과 글로벌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스티븐스 대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료생산 시스템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회사가 되길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CJ 임직원들의 열렬한 환대와 친절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념촬영을 끝으로 견학을 마무리했다.

▶ 전 조직원 대상 영업교육으로 고객지향의 사고 배양



시장환경이 좋지 않을 때 일반적인 기업은 위기 경영, 비용절감, 혁신추구에만 몰두하기 쉽다. 하지만 CJ제일제당 사료사업부문은 스마트한 행보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바로 교육에 적극 투자한다는 것.

흔히 영업교육은 영업인력을 대상으로만 시킨다. 하지만 CJ사료는 금년 4월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영업교육을 시작했다. 교육을 통해 전 조직원들이 영업프로세스를 이해함과 동시에 고

객지향의 사고배양으로 조직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진행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매우 크다는 후문이다.

CJ사료 교육프로그램은 축산/사료사업의 업(業)에 대한 본질을 명확히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디자인했다. 오랜 기간 동안 CJ사료의 축산전문가와 CJ그룹 교육전문가, 외부 교육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프로그램이 탄생한 만큼 교육종료시 만족도는 대단히 높다고 한다.

CJ사료 영업 교육프로그램은 CJ마인드셋, 고객마인드셋, DM스킬셋(지구부장 스킬셋) 등 총 3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준별 맞춤교육(Basic, Advanced, Excellence) 실시는 CJ사료만의 강점이다. 이밖에도 산학연계한 현장중심의 신입입문교육, 경력입문교육, 축종별 심화교육, TM교육(판촉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은 CJ사료의 자랑이다.

CJ사료 문기수 교육담당은 “금년도 안성시험농장에 교육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며 연간 교육로드맵에 따라 운영, 평가, 피드백으로 사료사업의 핵심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두산생물자원(주) 백두사료

▶ 중앙대학교와 MOU 체결

두산생물자원(주)대표이사 박근호와 중앙대학교는 지난 5월 18일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본관 3층 교무위원회회의실에서 산·학 연구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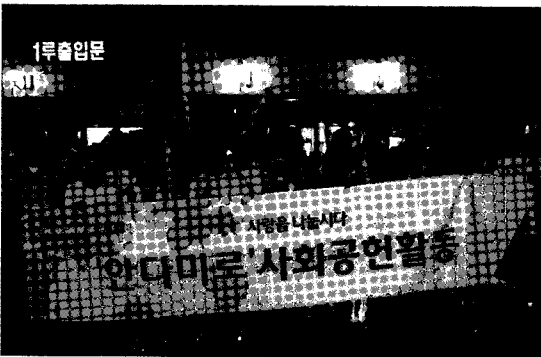
체결식에는 두산생물자원(주) 박근호 대표이사 와 중앙대 안국신 총장이 연구협력 협약서에 서명



한 후 상호 협약서를 교환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연과학대학 생명자원공학부(동물생명공학 전공)와 기술자문, 공동문헌조사, 현장 공동연구를 통한 자문 등 동물자원분야와의 교류, 동물 사료개발을 위한 농·식품 및 천연물에서 유래되는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발굴하고 이를 기술화 및 제품화 하기 위한 소재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연구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행복나눔 캠페인 실시



두산생물자원(주) 사회봉사팀 안다미로는 복지기관의 아이들과 함께 잠실구장을 방문, 야구관람을 함께 하며 문화활동을 했다.

행복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월 실시하는 이 봉사활동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직접 자필로 작성한 편지를 아이들이 마음을 담아 당사로 보내왔다.

두산생물자원(주) 임직원들은 아이들의 올바른 자립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 한국사료협회 조남조 회장 본사 내방



한국사료협회 조남조 회장과 문홍식 연구소장이 최근 곡물가 급등 및 구제역, 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 회원사인 두산생물자원(주)를 방문했다.

현장을 방문한 협회 임원들은 원재료비 급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의 고충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축산업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협회 및 회원사들이 슬기롭게 잘 극복하여 축산 선진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격려했다.